

세대 초월 '문화'로 승화...누구나 공감하는 '5월 유산'으로

518 함께 내딛는 새로운 50년

<4> 세대 공감할 콘텐츠 만들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편향은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5월 광주'의 의미를 훼손하고 지역민들의 가슴을 멎게 하고 있다.

5·18을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세대들은 5·18 민주화운동이 50년을 향한 첫걸음을 떼는 시기인데도, 여전히 광주를 부담스러워 하고 어려워한다.

이 때문에 5·18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미래 유산으로 활용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를 사회적·역사적 의미가 담긴, 세대를 초월한 '문화'로 승화해 누구나 공감하는 5월 정신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 안성기가 말하는 5·18 콘텐츠는="영화를 통해서나마 치유되지 않은 분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우 안성기(69)씨에게 '아들의 이름으로'는 지난 2007년 개봉한 영화 '화려한 휴가' 이후 두 번째 출연한 5·18 영화다.

안성기씨는 광주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개봉한 '아들의 이름으로'를 "1980년 5월 광주에 있던 한 남자가 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성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수하는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배우 안성기씨는 영화에 노개런티로 출연했다. 그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광주의 아픔과 상처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는 생각을 하며 마음이 아팠다"고 5·18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안 배우는 1980년 5월 당시에는 광주에서 일어난 참혹한 현장을 알지는 못했다고 했다. 이창호 감독의 '바람 불어 좋은 날'을 촬영하고 있었다는 게 안씨 기억이다. 안씨는 "광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보도되는 정도만 어렵게 알고 있었고 진상에 대해 알게 된 것은 훨씬 시간이 지난 후"라고 회상했다.

5·18을 주제로 한 영화를 촬영하면서 다른 느낌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 안성기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 안성기

"미래세대에 5·18 제대로 알려야"

뮤지컬 '광주' 고선웅 연출가

"경직되지 않은 작품으로 진실 전달"

5월 순례길 콘텐츠 기획 사유진 감독

"기억의 전달보다 직접적 체험 중요"

을 겪었다는 게 안 배우 설명이다. 5·18 영화를 찍는다는 소리에 광주지역 시민들이 도움을 주었고 영화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안 배우는 "전문 연기자가 아닌 광주 일상에 사는 수많은 분들과 함께 연기를 하는 경험은 처음"이라며 "실제로 당시의 기억을 갖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영화의 진실성이 더해졌다"고 했다.

안 배우는 "화려한 휴가" 촬영 때는 시민군의 역할을 맡아 감정이 복잡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1980년 5월 18일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날, 그들을 진압한 공수부대를 맡았다.

특히 아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희생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는 아버지의 역할이기 때문에 복잡한 내면을 연기해야 해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안 배우는 영화에서처럼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반성의 시작"이라고 했다.

◇뮤지컬 '광주'로 또 다른 5·18 다른 고선웅="미래세대에 과거의 아픔을 제 3자의 시각으로 보여주고 자신들 스스로 생각하고 진실을 찾아가게 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10월 초연하고 오는 15·16일 광주(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의 공연을 앞둔 창작뮤지컬 '광주'의 연출가인 고선웅(53)씨는 이번에도 조금 달랐다. '송고한 민주주의 뿌리'라는 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닌, 가볍게 춤추고 노래하면서 이해하는 작품으로 다가서고 싶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진실과 사실을 냉정하게 평가할 눈을 가졌다는 게 고 연출가의 생각이다.

엄숙주의의 관점으로 40년이 지난 5·18을 보는 방식은 과거의 방식이고 이제는 5·18은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승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 연출가는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을 다양하게 그려왔다. '광주'는 연극 '들소의 탈'(2009)을



뮤지컬 '광주' 고선웅 연출가



5월 순례길 콘텐츠 기획 사유진 감독

시작으로 '푸르른 날에'(2011), '나는 광주에 없었다'(2020)에 이어 5·18을 소재로 한 그의 네 번째 작품이다. 하나의 소재를 다양하게 변주하는 만큼 비슷한 공식을 반복하지 않으려 한 노력이 엿보였다.

"광주를 소재로 할 때는 눈에 빠지기 쉬워요." 슬픔과 비극이라는 통어반복을 피하기 위해 고 연출가의 주특기인 슬픔에 빠지지 않는 정서를 담았다. 무대 위엔 춤과 노래로 그리고 웃음을 빼곡히 채웠다. 즐겁게 춤을 춰도 우는 것이고, 노래를 불러도 통곡하는 것이 되는 한국의 정서를 통해 광주의 아픔과 처절한 기억을 승화 한다는 것이다.

고 연출가는 "콘텐츠가 경직돼 있어서는 관객을 흡수할 수 없다. 자유로워야 하고 소재는 새롭고 특별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광주에서 진행되는 뮤지컬에 광주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월 순례길 콘텐츠 기획한 사유진=옛 전남도청에서 국립5·18민주묘지까지 14km를 걷으며 광주 5·18 정신의 본질을 생각하는 순례길 콘텐츠, '5월 평화의길, 미안함과 함께 걷기'는 영화감독 사유진 씨가 기획했다. 5·18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현대에서 재해석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지난 2017년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를 제작한 바 있다. 광주 오월정신의 본질은 5·18 당시 부상자들의 피가 부족하자 시민들이 자

발적으로 현혈을 시작한 순수한 인간애와 인간됨이라는 게 사 감독의 생각이다.

사 감독은 이같은 오월 정신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세대에 전달되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직접적인 체험'을 꼽았다.

5·18 행사위원회의 올해 41주년 5·18 공모 사업에서 떨어졌는데도 스스로 순례길 콘텐츠를 진행하는 이유다.

순례길 사업이 정착돼 매해 인권의 문제나 사회적 이슈를 같이 연결하는 오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면 한다는 게 사 감독의 바람이다. 행사는 옛 전남도청에서 시작해 5·18 최초 발표지를 거쳐 4·19 기념관과 말바우 시장을 통과해 국립 5·18 민주묘지까지 걸으며 광주의 41년 전 모습에서 현대의 미안과 민주화의 열망의 이야기를 담는다.

인종과 국가 그리고 민족을 뛰어넘어 생명·민주·인권·평화의 민주화의 행진을 통해 송고한 광주 5·18 정신을 계승하려는 게 사 감독의 계획이다.

사 감독은 "젊은 세대에서 5·18을 '오일팔'이라고 읽지 않고 '오점일팔'로 읽고 있다는 점부터 동시대에 살고 있는 세대간의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정서의 교감과 소통은 문화매체 등의 다양한 콘텐츠로 실제로 같이 행동하면서 이뤄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버스 회차지 소음 피해 첫 인정 광주 동림동 주민 2명에 184만원 배상

버스회차지 주변의 소음과 매연·먼지 등의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13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광주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가 버스회차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 2명에게 소음피해로 각각 92만원 상당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광주시 북구 동림동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은 지난 2006년부터 집에서 5m 정도 떨어져 있는 인근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먼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광주시와 지역 버스운송사

업조합, 버스회사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평일기준 하루에 8대 13~17분(평균 15분) 간격으로 128회 버스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매연, 소음으로 수면방해, 청문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광주시는 민원제기에 따라 회차지 이전을 검토했으나 대체부지 확보가 곤란했고 회차지 노면은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회차지 경계부에 360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소음·진동 전문가를 통한 회차지 차량 소음을 측정한 결과, 야간 소음도가 54dB(A)

로 수인한도(45dB(A))를 초과한 점을 들어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매연·먼지인 인한 피해의 경우 시내버스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매연 발생이 극히 적고 3년간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모두 기준 이내인 점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지자체가 버스 회차지에 대한 적절한 입지 선정 및 운영 시 방음벽 설치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라임 로비·횡령' 이강세 1심서 징역 5년 선고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자금을 횡령하고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은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병현의 횡령 범행 전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공무원과 검찰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횡령에 따른 피해액이 크고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유력 언론인 출신으로서 사회에서 부여받은 지위를 개인적인 이유로 사용한 부분에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병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호회 인수도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를 기소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회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시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중 2천여주 0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산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총창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도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도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간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2층, 수리사용가 산 아래 마을 뒷 야마산 바라본 정남 매 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기루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산잔작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천 인근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삼힐플러스 길 건너면 동광주빌딩 내

상가매매 (상무 치구)

감정가(시세) 9억원
→매매가 4억9천만원

- ☑ 중심상업지구 메가박스 영화관 앞
- ☑ 사무실, 바, 유흥룸, 모든 업종 가능
- ☑ 즉시 업무 가능, 시비 없음

010-6670-9800

신축원룸(매매)

월 수익 750만원
연 수익 9천만원
→매매가 13억원 (용 6억5천만원)

- ☑ 공실 없음, 임차인 항시 대기 (관리 회사에서 해드림)
- ☑ 당진시 석문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부근 대산항 10분 소요

010-4667-9820